국어방정식
공식으로 명쾌하게, 국어도 방정식처럼!

구운몽

김만중 · 고전 소설, 몽자류(夢字類) 소설, 영웅 소설, 애정 소설
2021년 9월 고2 · G202109H2
원문 읽기 · 그림 요약 · OX 40 · 객관식 15 · 정답과 근거

기본 → 심화 → 최고난도 순으로 읽고 판단합니다. 오답은 원문 근거와 대조하여 바르게 고쳐 쓰세요.

목차

샘플 4쪽 ·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표지·목차	1쪽
암기 그림 — 첫 페이지	2쪽
어휘 그림 해설 — 첫 페이지	3쪽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— 문제 첫 페이지	4쪽

본문 [번호]는 이 학습지의 문단 번호입니다. 해설의 근거 번호와 연결하여 읽으세요. 발췌 범위 밖의 줄거리와 구분합니다.

배포번호 G202109H2-SR-REV20261022-R3

② 암기 그림 — 4묶음 × 3컷

암기 그림 1 · 혼처 소개와 조건 → 얼굴을 보게 해 주소서







혼처 소개와 조건 → 정 사도 집, 하늘 사람 → 얼굴을 보게 해 주소서

1. 혼처 소개와 조건 [2]

성진이 여덟 선녀를 희롱한 죄로 쫓겨나 꿈속에서 양소유로 환생한다. 양생은 과거가 닥쳤어도 과거에는 마음이 없어 며칠 뒤 다시 두련사를 찾는다.

2. 정 사도 집, 하늘 사람 [3]~[6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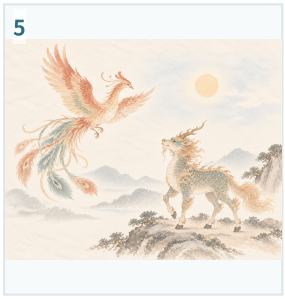
양생: 「어떤 집 여자입니까?」 두련사: 「춘명문 안 정 사도 집 — 붉은 칠한 문이 길에 닿고 위에 계극을 벌여 세운 집이다. 」 양생은 그 처자가 섬월이 말하던 여자임을 알고 「어떤 여자이기에 두 서울에서 이렇게 이름이 났나?」 속으로 생각하며 묻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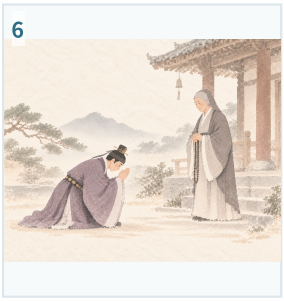
3. 얼굴을 보게 해 주소서 [7]

양생([A]): 「자랑이 아니라 이번 과거는 제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. 다만 평생 바라는 바가 있어 처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구혼하지 않으려 하니, 사부께서 자비를 베풀어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.」.

암기 그림 2 · 재상가 처자는 볼 수 없다 → 모친의 부탁, 계교를 청함







재상가 처자는 볼 수 없다 → 누구나 알아보는 아름다움 → 모친의 부탁, 계교를 청함

4. 재상가 처자는 볼 수 없다 [8]~[9]

두련사가 크게 웃으며: 「재상가 처자를 어찌 서로 볼 수 있겠느냐. 내 말이 믿음직하지 않아 의심하느냐?」 양생: 「어찌 감히 의심하겠습니까?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다 각각 다르니 사부의 눈이 어찌 제 눈과 같겠습니까?」.

5. 누구나 알아보는 아름다움 [10]~[11]

두련사: 「그렇지 않다. 봉황과 기린은 누구나 상서로운 줄 알고 청천백일은 누구나 그 청명함을 우러러보니, 눈 없는 사람이 아니면 어찌 그 고운 모습을 모르겠느냐?」 양생은 오히려 기분이 좋지 못해 돌아갔다가 이튿날 일찍 자청관에 온다.

6. 모친의 부탁, 계교를 청함 [12]

양생: 「정 소저를 보지 못하면 끝내 의심이 남습니다. 사부께서는 우리 모친이 정성을 다해 부탁한 것을 생각하시어 계교를 베풀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깐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.」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③ 어휘 그림 해설 — 12컷



1. 재모

뜻 재주와 용모. 두련사는 이것을 따지면 정 소저가 분명 양랑의 짝이라 한다([2]).

배경 才貌 · 재모

작품 속 쓰임 재주와 용모. 두련사는 이것을 따지면 정 소저가 분명 양랑의 짝이라 한다([2]).



2. 공후

뜻 공작과 후작 — 높은 벼슬. 정 사도 집이 여섯 대에 걸쳐 지낸 벼슬로, 너무 높은 가문임을 알린다([2]).

배경 公侯 · 공후

작품 속 쓰임 공작과 후작 — 높은 벼슬. 정 사도 집이 여섯 대에 걸쳐 지낸 벼슬로, 너무 높은 가문임을 알린다([2]).



3. 신방 급제

뜻 과거 합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이 오름. 두련사가 내건 혼사의 조건이다([2]).

배경 新榜及第 · 신방 급제

작품 속 쓰임 과거 합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이 오름. 두련사가 내건 혼사의 조건이다([2]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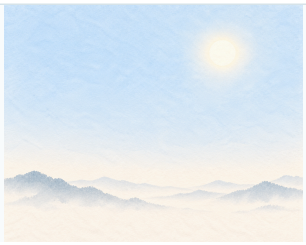


4. 계극

뜻 높은 벼슬아치 집 문 앞에 세우던 의장용 나무 창. 정 사도 집을 알아보는 표지다([4]).

배경 棨戟 · 계극

작품 속 쓰임 높은 벼슬아치 집 문 앞에 세우던 의장용 나무 창. 정 사도 집을 알아보는 표지다([4]).



5. 청천백일

뜻 맑게 갠 하늘의 해. 누구나 우러러보는 것 — 정 소저의 아름다움을 견준 비유다([10]).

배경 靑天白日 · 청천백일

작품 속 쓰임 맑게 갠 하늘의 해. 누구나 우러러보는 것 — 정 소저의 아름다움을 견준 비유다([10]).



6. 계교

뜻 요리조리 헤아려 짜낸 꾀. 거절당한 양생이 두련사에게 마지막으로 청한 방법이다([12]).

배경 計巧 · 계교

작품 속 쓰임 요리조리 헤아려 짜낸 꾀. 거절당한 양생이 두련사에게 마지막으로 청한 방법이다([12])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1~5

1. 윗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참조 구절 · 문항용 기호

(1) 두련사가 정 사도 집 처자를 소개한다
(2) 양생이 계교를 베풀어 달라고 청한다
(3) 전 노파가 거문고 소리를 듣고 연주자를 묻는다
(4) 양생이 여사도의 복장으로 정 사도 집에 간다
(5) 부인이 시비를 시켜 소저를 나오게 한다

① (1)→(3)→(2)→(4)→(5)

② (2)→(1)→(3)→(4)→(5)

③ (1)→(2)→(3)→(4)→(5)

④ (1)→(2)→(4)→(3)→(5)

⑤ (1)→(2)→(3)→(5)→(4)

2.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〔일반 · 원 43번〕

① 양생은 정 소저가 명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다.

② 양생은 정 소저와 만나기 위해 과거 시험을 피하고자 하였다.

③ 부인은 교자를 보내 거문고 타는 여자를 집으로 불러 들였다.

④ 부인은 정 소저가 젊은 여관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.

⑤ 두련사는 부인이 전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양생을 불러주기를 기대하였다.

3.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두련사는 「신방 급제를 하면 이 혼사를 의논하려니와」[2]라 하여 혼사의 조건으로 과거 급제를 내건다.

② 양생은 「사부의 눈이 어찌 소자와 같겠사옵니까?」[9]라 하여 두련사의 안목을 그대로 믿지 않으려 한다.

③ 전 노파는 「우리 부인이 들으시면 부르실 법하니」[16]라 하여 거문고 타는 이를 붙잡아 두기를 당부한다.

④ 부인은 「돈연히 더러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도다」[19]라 하여 찾아온 도사를 높이 대접한다.

⑤ 정 소저는 「부인 곁에 모로 앉았다」[26]에서 보듯 양생의 정체를 알아채고 그를 멀리하려 한다.

4. ㉠~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참조 구절 · 문항용 기호

㉠ [13] 귀를 기울여 듣자 그 소리가 더욱 묘한지라
㉡ [15] 그대가 칭찬하니 필연 잘 타는 솜씨로다
㉢ [22] 다 옛사람의 소리라
㉣ [23] 아주 좋은 재목이라
㉤ [24] 비록 천금이라도 바꾸지 못하리이다

① ㉠은 거문고 소리에 끌린 전 노파의 모습으로, 양생이 정 사도 집에 불려 가는 계기가 된다.

② ㉡은 두련사가 거문고를 탄 이가 누구인지 몰라 전 노파의 판단에 기대는 말이다.

③ ㉢은 양생이 자신의 연주 솜씨가 모자람을 솔직히 털어놓는 말이다.

④ ㉣은 부인이 거문고를 사들이려고 값을 따져 보는 말이다.

⑤ ㉤은 양생이 거문고를 부인에게 선물로 바쳐 환심을 사려는 말이다.

5.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작품 속 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전하고 있다.

② 「(중략)」 앞뒤의 사건을 시간의 역순으로 배열하여 원인을 뒤늦게 밝히고 있다.

③ 「양생이 왈」 같은 표지 없이 인물의 말만 잇달아 늘어놓고 있다.

④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, 「눈이 부시고 정신이 요란하여」[26]처럼 인물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기도 한다.

⑤ 「붉은 칠한 문이 길에 닿아 있고」[4]처럼 공간을 자세히 묘사하여 비현실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